

이룸소식 2015 09호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날씨를 보이는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이룸의 운용경과와 9월 운용계획을 전합니다.

8월 현황

지난 8월의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큰 조정으로 종합지수 4.4%, 코스닥지수 5.2%의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상하이 지수하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확대되면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외국인은 거래소시장에서 4조 1000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8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 매도하여 시장하락을 주도하였습니다.

운용경과

이러한 시장흐름 속에서 이룸의 일임계좌들도 약 2.8%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종합지수보다 약 1.6% 정도 하락폭이 작으므로 시장이 회복되면 오히려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수익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9월 시장전망

9월 중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여부와 중국경제 및 증시의 안정여부 확인될 때까지 시장의 등락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악재이면서 동시에 호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증시의 급락에 따른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의 절하는 그 동안 중국 위안화가 엔화나 원화 등 다른 경쟁국 통화에 비하여 고평가된 측면이 있어서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큰 경제적 변화 없이 후강통 등을 재료로 중국 상하이 증시가 과거 1년 여 동안 2000포인트 수준에서 5000포인트까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보이고 지수 3000포인트까지 하락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은 중국 증시는 현 수준에서부터는 점차 안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계획

이룸은 지난 하락국면에서 현금비중을 소폭 늘리고 종목을 교체하는 노력을 통해서 종합지수 대비 하락폭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종합지수가 19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한 현 상황에서 이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경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전략을 통하여 향후 증시가 반등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항상 투자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지만 이 과정은 포트폴리오 관리방법에 따라서 지수가 회복되었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최근 지수하락 국면에서 고객님 계좌의 평가손실이 지수보다 더 작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후 상승국면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도록 노력하여 결국 이번 조정도 고객님 계좌가 더 높은 추가수익을 얻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해주심에 감사 드리며 10월에 더 높은 소식으로 인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015. 9. 2.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